

고객 만족 · 친환경 경영 통해 발전 거듭

아름다운 포장 문화 실현 위해 노력



◀ 임경호
세미산업(주) 대표이사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포장이 있다. 다품종 소량화의 현대 사회,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포장의 중요성을 또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현재 시장상황은 “포장이 제품의 전부”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요즘, 제품 차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우수 포장업체 중 ‘포장’ 자체의 실속은 물론이거니와 ‘아름다운 포장’이라는 모토로 업계 발전을 유도하고 있는 세미산업(주)(대표이사 임경호)을 찾았다.

세미산업(주)은 지난 1973년 1월 내쇼날 공

업사로 설립돼 제비표 폴리에틸렌 필름을 생산, 판매하며 성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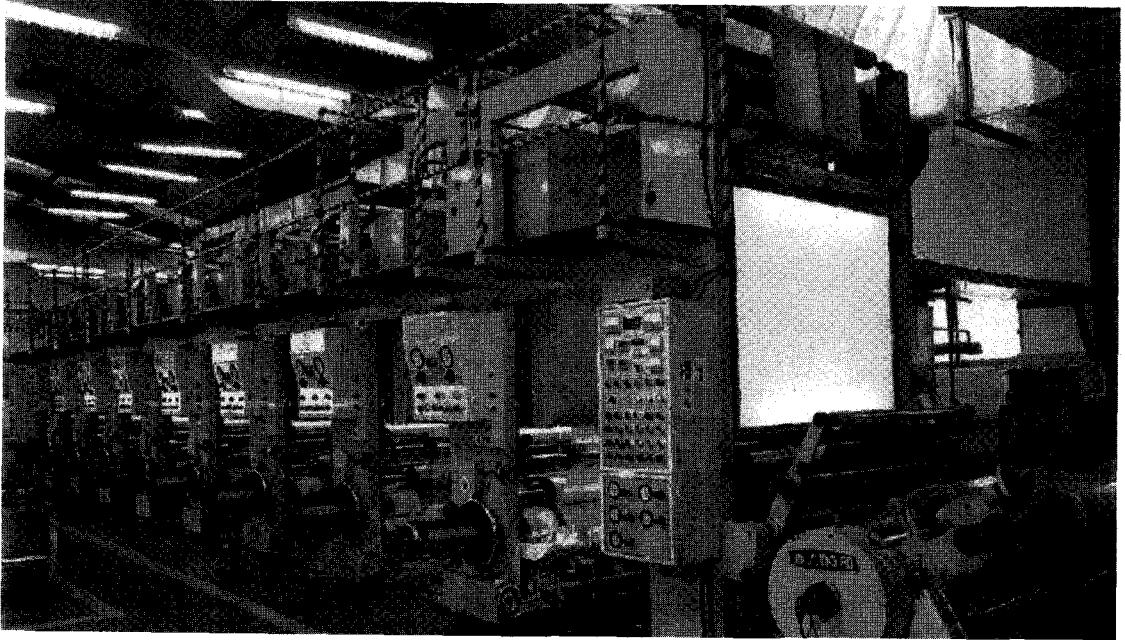
1979년 4월 (주)세원프라스틱으로 법인을 전환하며 이듬해 식품 연포장재 생산을 개시, 세미산업(주)은 그간 꾸준한 기술 축적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연구 노력해왔다.

지난 1982년 (주)세원으로, 94년에는 제비표 필름(주)으로 상호를 변경, 95년에 지금의 세미산업(주)으로 탄생되어 2000년 5월, 현 임경호 사장의 취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맞게 됐다.

미원유화에서 석유화학 계통 일을 했던 임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포장재 생산이 곧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생각, 즉 “포장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세미산업(주)을 운영할 것이라 마음먹게 된다.

구매를 리드하는 포장 중요성 강조

임경호 사장은 “나를 아름답게 하자, 고객을 아름답게 하자, 세상을 아름답게 하자는 이 세가지 생각으로 세미산업(주)을 운영하고 있다”며



▲ 세미산업(주)이 보유하고 있는 그라비아인쇄 8도기

“포장이 매출증대를 야기시켜 고객을 아름답게 한다”는 측면에서 포장의 참매력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사장은 포장은 단순한 상품의 보관과 이동의 수단이 아닌 구매 의욕까지 선점할 수 있는 마력을 지닌 것이므로 포장산업의 퇴보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무궁한 발전만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2000년 5월 한국합성수지 단체표준표시 인증(HD소각용)에 이어 2001년 7월에는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세미산업(주)은 올해 7월, 경기도 화성으로 본사를 이전함으로써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매출 신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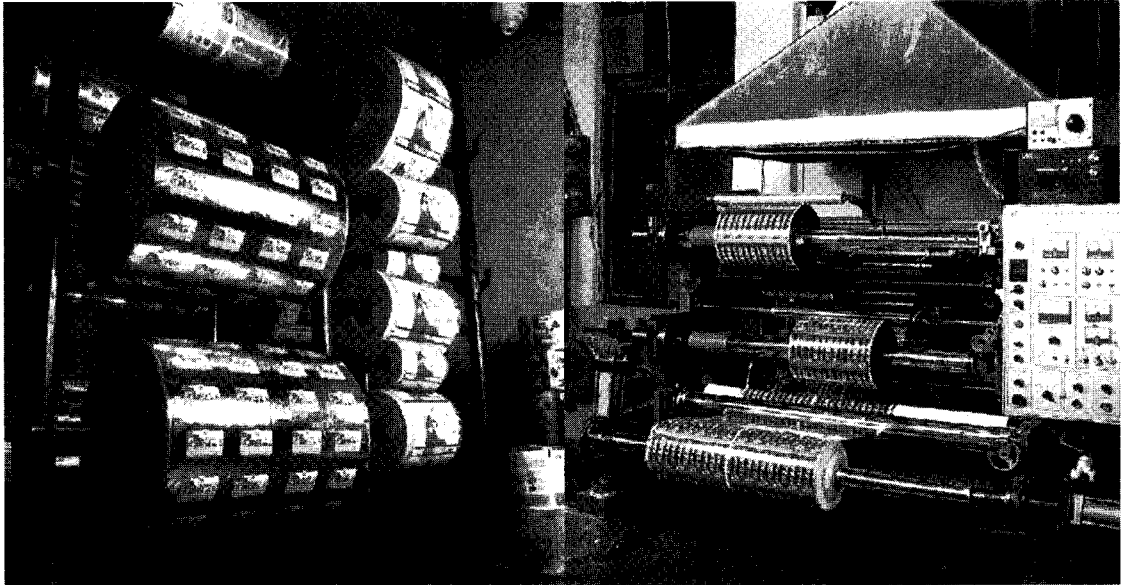
임경호 사장은 화성으로 공장을 이전할 당시, 거리상의 불리함 때문에 인원충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고민했었지만 평균근속 10년 이상

의 직원들이 준비한 세미 임직원들의 협조로 세미산업(주)은 기존 양평동 본사의 비효율적이던 작업 환경에서 탈피,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소재 활용, 친환경 경영

현재 세미산업(주)은 일반 조미류 양념류(중합조미료)포장재를 비롯한 진공포장재, 냉동·냉장 포장재, 즉석 식품 포장재 등의 다양한 식품 연포장지와 중포장, 쇼핑백 및 식품포장용 LLDPE 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를 위해 PE백의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적극 활용, 매립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임경호 사장은 “인류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 세미산업(주)의 숙성실과 슬리팅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품 생산을 할 때마다 포장 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환경 역시 보호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에게는 세분의 고객이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제품을 만드는 사원, 이익을 제공하는 주주. 이 셋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에 따라 세미산업(주)의 발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사장은 열린 경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품질경영을 강조한다.

지난 2001년 ISO를 획득했을 때도 그는 “1년간의 노력 끝에 취득한 ISO 인증은 취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회사 표준화와 매뉴얼 수립을 통해 그동안 세미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

는 계기가 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임 사장은 고객이 보고 있는 세미산업(주)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8개월의 기간 동안 52명의 직원들에게 사소한 정리정돈을 비롯해 낭비요소 제거 실천을 강조하고 임원들에게는 Self-Management를 체크할 것을 권유하는 등 경영혁신운동을 추진, 변화를 통한 세미의 발전을 추구하려한다.

특히 임 사장은 세미산업(주)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나를 위해 투자를 해준다”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자녀 등록금을 제공하는 등의 사원복지에 힘쓸 뿐 아니라 사원과 회사와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를 가지려 노력한다.



▲ 고품질을 추구하는 세미산업(주)의 생산제품

기능성 필름개발에 주력할 터

임경호 사장은 “향후 식품산업은 맛에 있어서는 자연 그대로를 추구하면서 사용에 있어서는 편리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세미산업(주)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파악해 레토르트 식품 포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독일 등지의 해외전시회를 통해 포장 이 시간 절약을 추구하는 등 다기능화 되는 것을 느꼈다는 임 사장은 ‘1인용·1회용·절약용 포장재 생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미산업(주)은 앞으로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필름류에 대해 향균이 가미된 기능성 필름의 개발을 통해 수입 대체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연구에 노

력하고 있다.

임경호 사장은 현재 포장협회를 중심으로 연포장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활발하게 진행돼 가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로 더불어 사는 만큼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업계 운영인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객만족을 통한 풍요로운 삶의 창출”이라는 최고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포장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발전을 거듭해 온 세미산업(주). 포장산업의 퇴보란 있을 수 없다는 마인드로 성장해 온 세미산업(주)이 21세기, 끊임없는 다품종 물량 시대에 국내 포장 산업의 “진정한 미(美)”를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K]

박초혜 기자